



이명희 글 · 최지영 그림

책 소개

어느 날 민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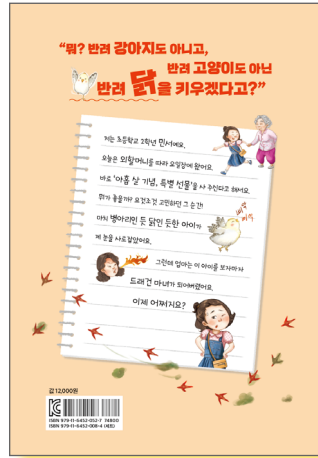
입이 삐죽하고 파드득 날갯짓하는 귀여운 병아리, 코코!

할머니네 시골 장터에서 한 마리 병아리에게 첫눈에 반해 버린 민서는 그 병아리를 코코라 이름 짓고 서울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절대 닭을 기를 수 없다면서, 엄마가 코코와 함께 사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민서는 코코의 재능을 가족들에게 알려 주려고 꾸꿍이를 펼치는데요! 민서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활동 1 『오! 나의 반려 닭, 코코』를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세요. 누가 누가 나오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등장인물이 누구일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 책의 제목에는 '반려 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고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마음껏 적어 보세요.

활동 2 등장인물이 되어 일기 써 보기



『오! 나의 반려 닭, 코코』는 주인공 민서가 시골 병아리 코코를 도시의 아파트에 데려오면서 벌어진 일을 담고 있어요. 코코를 둘러싸고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책 속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대신 일기를 써 보아요. 인물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써 봐도 좋고, 책 속의 다른 인물이나 사건으로 일기를 써 보아도 좋습니다.



민서 엄마의 일기

엄마가 코코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일어난 일 : 민서가 코코를 집으로 데려온 날, 엄마는 코코를 다시 시골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마 대신 일기를 적어 보아요.



코코의 일기

코코가 민서를 처음 본 순간

일어난 일 : 코코는 몇 살일까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민서를 만난 날, 코코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코코가 장터에 오기까지를 상상하면서, 민서와 만난 날의 기억을 일기로 써 보아요.





코코의 일기

'코코 하우스'가 생겼어

일어난 일 : 코코는 민서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 기뻐했을까요? 적응하기 힘들었을까요? 민서는 코코를 위해 '코코 하우스'를 지어 주는데요. 코코 하우스가 생긴 날, 코코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상하며 일기로 써 보아요.



민서의 일기

코코는 '슈퍼 천재 닭'이 될 거야!

일어난 일 : 민서는 코코에게 '슈퍼 천재 닭'이 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민서네 가족들도 코코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서는 코코를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민서의 마음을 상상해 봐요.





민서의 일기

코코가 황금 알을 낳았다고?

일어난 일 : 민서는 엄마가 코코를 좋아할 수 있도록 작전을 펼쳐요.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금빛은 박지로 두르고 코코가 낳은 것처럼 엄마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민서의 꿩꿩이를 금방 다 알아차린 거 있죠! 엄마가 다 믿을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빨리 눈치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민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난각 번호의 비밀

0820



달걀을 낳은 날짜

AB1004



어떤 농부가 길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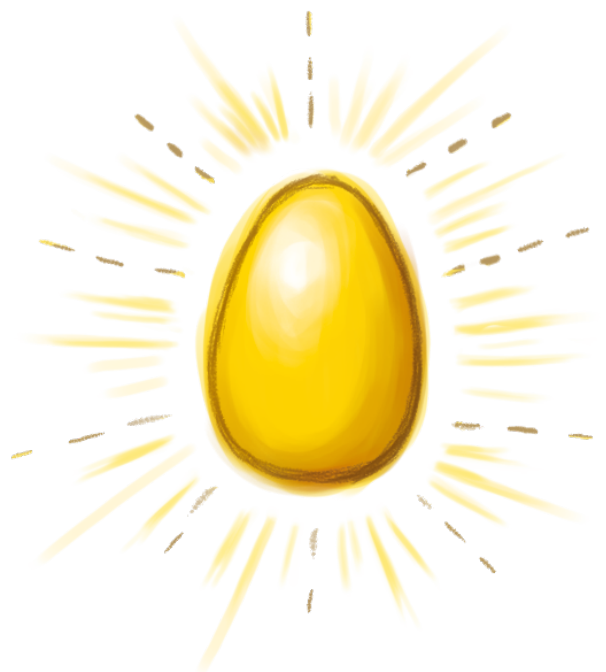
2



자연 환경

엄마는 민서의 눈속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난각 번호' 때문이에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달걀에는 난각 번호가 찍혀 있어요. 난각 번호를 보면 닭이 달걀을 언제 낳았는지 또 어떤 농부가 닭과 달걀을 길렀는지, 닭이 닭장에서 자랐는지, 모래밭에서 자랐는지 등을 알 수 있지요.





코코의 일기

코코가 독뱀을 물리친 날

일어난 일 : 민서 앞에 독뱀이 나타났어요. 이때 코코가 나서서 독뱀을 물리쳐요. 코코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코코 대신, 그날의 일기를 써 보아요!



민서의 일기

코코가 독뱀을 물리친 날

일어난 일 : 민서는 독뱀을 만나서 두려웠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코코가 나타나 민서를 구해 주어요. 민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코코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었을까요? 그날의 일기를 민서 대신 써 보아요!



활동 3 퀴즈로 알아보는 닭의 생명력



사람들은 닭에게 많은 걸 받아요. 여러분도 달걀 반찬을 좋아하나요? 닭이 낳은 알은 맛도 좋고 영양도 높아서, 예전부터 귀한 먹거리로 쓰였어요. 사람들은 닭에게서 고기를 얻기도 하고, 농사에도 썼어요. 닭은 밭에 사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 주고요. 닭똥은 퇴비를 만드는 데 쓰여요.

닭은 생명력 넘치는 동물이에요. 지능도 높고, 모래 목욕을 즐기고,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06 닭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아요.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7년
- ⑤ 40년
- ⑥ 기타 ()

07 닭의 생김새는 다양해요. 특히 코코는 날개 색이 독특해요. 무슨 색일까요?

- ① 빨간색
- ② 분홍색
- ③ 녹색
- ④ 파란색
- ⑤ 거뭇한 점들이 콕콕
- ⑥ 기타 ()

08 수탉은 이른 아침마다 헛대에 올라가 '꼬끼오' 하고 울어요. 사람들은 수탉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곤 하지요. 수탉은 어떻게 해서 아침이 온 걸 아는 걸까요?

- ① 배가 고파서
- ② 낮선 사람이 침입해서
- ③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 ④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 ⑤ 수탉은 빛에 예민하여 아주 적은 빛도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 ⑥ 기타 ()

★힌트

6. 닭은 보통 7년~13년 정도를 살아요. 자연에서 뛰놀며, 자란 닭은 15년~20년까지도 산다고 해요.

7. 코코는 우리나라에서 토종닭이라고 부르는 종이에요. 닭은 여러 품종이 있어요. 품종마다 생김새와 색깔이 달라요. 토종닭은 벵이 붉어요. 눈은 밝은 밤색이고 목 밑에 있는 고기 수염이 길어요. 또 꼬리와 다리에도 깃털이 많이 나요. 몸 색깔이 갈색, 검은색, 흰색, 회갈색 등 다양해요.

8. 수탉은 뇌 속에 '송과체'라는 기관이 발달했어요. 바로 송과체 덕분에 금방 햇빛을 알아챌 수 있어요.



활동 4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보기



민서는 코코를 반려동물로 삼았어요. 이건 코코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반려동물’이란 말에는 함께 사는 동물을 귀여운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프거나 귀찮을 때에도 사랑하고 의지하며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도 반려동물이 있나요? 혹은 가까이 살면서 평생 돌보고 싶은 동물이 있나요? 그런 동물이 있다면 아래에 그려 보아요. 그리고 그 동물의 특징을 조사해서 적어 보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리 꿈을 꾸어 보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일 수도 있고, 금붕어일 수도 있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무나무나 야자나무 같은 반려 식물을 그려도 좋을 거예요.

<민서의 코코 관찰 기록>



이름 : 코코
종류 : 닭
나이 : 10살 같은 1살
먹이 : 쌀, 개미, 나무 열매, 지렁이
특징 :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 큰 수탉
좋아하는 것 : 민서, 벌레 잡기, 모래 목욕
싫어하는 것 : 고양이 세바스찬

이름 : _____

특징 : _____

종류 : _____

나이 : _____

좋아하는 것 : _____

먹이 : _____

싫어하는 것 : _____